

한풀 꺾인 공모주 열기... '빅히트' 실망감에 투심 위축

美대선 따른 증시 불확실성
대형 공모주 풀림 학습효과에
개인 공모주 투자 열기 잠잠

기업들, 상장 시기 조정 등
연말 IPO시장 숨고르기 예고

SK바이오팜 등장 이후 뜨거웠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잠잠한 분위기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열기도 식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시장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 데다 대형 공모주의 풀림현상에 따른 학습효과로 중소형 공모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연내 대형 공모주의 IPO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유통시장 활황마저 꺾이며 한동안 공모주 시장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공모주 시장 잠잠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상장을 확정 지은 곳(이하 스팩·재상장·코넥스 제외)은 지난 6일 데뷔를 마친 소록스를 포함해 교촌에프앤비(12일), 네패스아크(17일) 등 총 8곳이다. 20곳이 상장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신규 상장 기업 수도 7곳에 그치며 전년 동기 17곳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54곳. 현재까지 한국거래소(KRX)로부터 IPO 승인을 받아낸 20곳이 연내에 모두 상장하더라도 77곳이 상장했던 지난해 기록에 미치지 못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오는 12월에도 상장 기업 수

(10일 기준 상장 예정 기업 10곳)

| 기업명 | 상장예정일 | 기관 수요예측 결과 | 공모가 |
|--------------|-------|------------|---------------|
| 교촌에프앤비 | 11.12 | 999.44:1 | 1만2300 |
| 네패스아크 | 11.17 | 707.7:1 | 2만6500 |
| 고바이오랩 | 11.18 | 64.33:1 | 1만5000 |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11.20 | 3.66:1 | 7500 |
| 티앤엘 | 11.20 | | 3만4000~3만8000 |
| 하나기술 | 11.25 | | 3만1000~3만5000 |
| 제일전기공업 | 11.26 | | 1만5000~1만7000 |
| 엠플코 | 12.02 | | 2만1400~2만4300 |
| 포인트모바일 | 12.03 | | 1만3000~1만5000 |
| 퀀타메트릭스 | 12.10 | | 1만9700~2만5500 |

(단위: 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가 10~15곳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이 되면 북적거렸던 IPO 시장의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높은 수치를 보인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12월에도 전년보다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경쟁률도 떨어졌다. 지난달부터 양대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9곳의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경쟁률 평균은 719대 1로 집계됐다. 지난달 상장 기업 7곳의 기관 경쟁률(679대 1)은 올해 월별 경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3분기에 수요예측을 진행한 27곳의 평균 경쟁률은 805대 1이다.

기관의 관심이 떨어진 정황은 최근 수요예측에서도 포착됐다.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체로 주목받은 에이플러스에

셋어드바이저는 지난 5~6일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3.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가장 낮은 수요예측이다. 공모가도 희망가 범위(밴드) 1만 500~1만2300원을 훨씬 밑도는 7500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수요예측을 진행한 고바이오랩도 경쟁률 64.33대 1이라는 저조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공모가도 1만5000원으로 밴드(1만8000~2만3000원) 밑으로 내려갔다.

◆광풍이 찬바람으로...

이처럼 공모시장 열기가 잠잠해진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지목된다. 첫 번째는 지난달 상장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추가 흐름이다. 상장 후 가파른 내림세를 이어간 빅히트를 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공모주 시장 이탈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빅히트는 27만원에 시초가가 형성되며 데뷔 당시만 해도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 달 말엔 공모가

(13만5000원)에 근접한 14만2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시장의 관심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중됐던 것도 신규 상장사엔 부정적이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증시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상장 청구 접수 건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을 계획 중인 업체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심사 청구를 접수해 내년에 공모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대형 공모주를 피해 상장 시기를 연기한 곳이 많다는 시각도 있다. 박종선 연구원은 "기업들이 빅히트 같은 큰 기업의 상장을 피해 다른 시기로 조정하는 것도 소강 상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전략이다 양해했기 때문이라는 의견 역시 들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미국 공모주 시장이나 장외주식시장까지 진출하며 상대적으로 국내 공모주 시장 관심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상장 기업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파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 형성+상한가)' 현상이 잦아지며 흥행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경우 기관들이 발을 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하나금융투자

유튜브 '하나TV'서 리서치 전망 포럼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17부터 18일까지 이틀간 '2021년 리서치 전망 포럼'을 하나금융투자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를 통해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각 분야별 애널리스트가 총 출동해 경제와 금융, 산업 등 전 분야를 전망하는 행사다.

하나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번 포럼은 1부(17일)와 2부(18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내년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을 내다보고 2부에서는 각 산업별 전망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1부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되며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의 오픈으로 시작한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되는 2부에서는 기업분석의 애널리스트들이 강사로 나와서 각 산업별 전망과 투자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美 대선' 불확실성에 10월 채권시장 금리 상승

금투협 장외채권시장 동향
총 발행잔액 2249.9조 기록
외인 채권 순매수 소폭 하락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금리 상승과 미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상승(채권값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2020년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66조 9000억원으로 전월(72조9000억원) 대비 6조1000억원 감소했다.

발행 잔액은 국채, 특수채, 금융채 등 순발행이 18조원 증가해 2249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는 소폭 하락했으나 기업들의 발행 수요 감소 등으로 발행은 전월 대비 7000억원 감소한 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금투협은 "10월 초 추석 연휴 기간 미 금리 상승에 따른 장기물 금리 상승,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금통위 금리 동결에도 기초적인 재정 확대 추세에 따른 수급 부담으로 금리가 상승했다"

며 "10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 국고채 2년물 신선표 발표,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라 금리는 하락했으나, 미국의 추가 부양책 통과 무산과 미 대선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금리는 혼조를 보이며 추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0월 회사채 수요예측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소폭 감소하면서 총 42건 3조 6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12조 8350억원으로 참여율은 349.7%였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9.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10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전월 대비 66조9000억원 감소한 376조6000억원,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한 1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국채 5000억원, 통안채 2조3000억원 등 총 3조2000억원을 순매수했다. 다만 순매수 규모가 정체돼 국채 보유 규모는 150조7262억원으로 전월 대비 2270억원 소폭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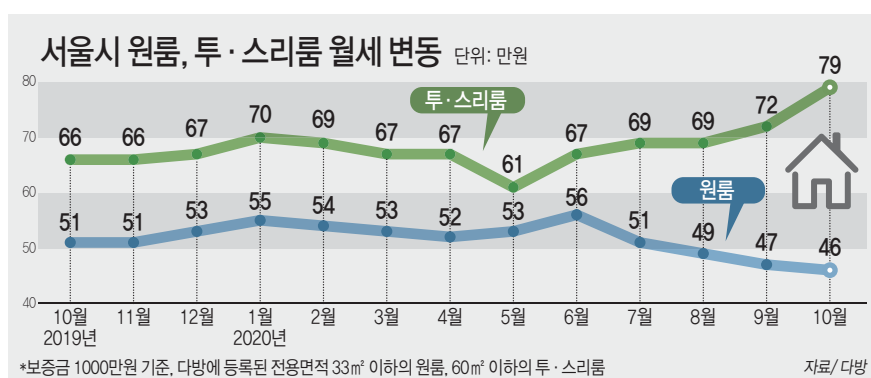
/박미경 기자 mikyung96@

서울 원룸 평균월세 2% 하락... 투·스리룸은 10% 상승

주택근무 장기화에 원룸 수요 감소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가 지난달 46만원으로 전월 대비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근무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이유다.

특히 용산구(45만원)와 도봉구(33만원)에서 원룸 월세가 전월 대비 8%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외에 강서구(36만원), 금천구(35만원), 강동구(47만원), 동대문구(44만원) 등에서도 4~5% 하락했다.



반면 서울 투·스리룸(전용면적 60㎡ 이하의 투·스리룸) 월세는 전월 대비 10% 가량 올랐다. 전세난에 따라 전셋

값이 오르면서 월세도 동반 상승, 서울 25개구 가운데 15개구에서 월세가 오른세를 나타냈다.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금천구(66만원), 관악구(74만원), 동작구(72만원), 영등포구(73만원) 등으로 6~8%가량 상승했고, 이 외에 노원구(63만원), 도봉구(58만원), 마포구(81만원), 성북구(67만원), 용산구(79만원), 종로구(85만원)도 4~5% 올랐다. 반면 강동구(68만원), 서초구(92만원), 송파구(81만원)에서는 4%가량 하락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2학기 온라인 수업 영향으로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대 인근이 5%가량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건국대, 경희대, 서울고대, 서울대 인근 등에서도 3~4% 하락했다.

/정영우 기자 yw964@

하이투자증권

신탁·랩 운용자산 2년만에 6배 성장

하이투자증권이 2년만에 신탁·랩(wrap) 운용자산이 6배 이상 성장시키며 수익구조 다변화에 성공했다.

하이투자증권은 2018년 말 1조8000억원 수준이던 신탁·랩 운용자산이 올해 11월 초 현재 10조원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말 약 3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랩어카운트 수탁고는 2020년 11월 초 현재 3조3000억원 규모로 110배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이투자증권은 그동안 고객맞춤형 상품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고객자산운용본부를 신설했다. 여기에 산하에 신탁·랩 운용부를 배치하는 등 직제개편과 동시에 외부 인력을 보강해 운용 역량을 강화했다. 또 운용과 판매조직 간의 정기적인 협업을 통해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장상황과 고객ニーズ에 적합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상품 공급에도 주력했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의 대표 상품으로는 연기금 및 일반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우량 채권 및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신탁·랩 상품이 있다.

/송태화 기자